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천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편집인: 우기현 편집국장: 이종국

1996년도 교구 관할지역 일부 변경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변경으로 제12, 13교구(경기도)는 인접한 교구에 편입

교회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교구 관할 지역 일부를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 행정구역 상으로 편성된 제12, 13교구를 한강 이북지역은 서울 인접 교구에 편입시키고 기타는 신개발도시 중심으로 교구를 편성하기로 했다.

이런 원칙에 따라 변경된 교구는 제8-1교구의 도봉구와 강북구를 분리 표기하게 되고, 제9-2교구의 성동(1)구를 성동구로, 제10-1교구의 성동(2)를 광진구로 표기하였다. 또한 광진구로 분구됨에 따라 약간의 동(洞) 이동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제5-1교구의 구로구(가산, 독산, 시흥)은 금천구로 분리 표기하게 되었다.

경기도 지역의 제12, 13교구는 제12-1교구의 의정부, 동두천은 제8-1교구로 제12-1교구의 구리, 미금, 남양주는 제8-2교구로 제12-2교구의 하남, 광주는 제10-2교구로 제13-1교구의 고양(일산)은 제7-1교구로 제13-2교구의 김포는 제6-1교구로 각각 편입하기 되었다.

새로 편성된 각 교구의 행정지역은 별표와 같다(밑줄친 부분이 변경된 내용이다)

여전도사 청빙



교회는 2명의 여전도사를 청빙하기로 했다.

김복순 전도사(40세, 좌측 사진)는 한국성서신학교를 졸업하고 총신대학 평생교육원 여

교역자 과정에 있는데 성남의 사랑의 교회 심방전도사로 일해왔다.

최영란 전도사(32세, 우측 사진)는 대구신학교, 한국임상목회 대학원을 졸업



하고 미국 카바넬트신학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왕성교회에서 시무 전도사로 일해왔다.

김복순 전도사는 제9-2교구 담당 전도사(10월 15일부), 최영란 전도사는 제10-2교구 담당 전도사(10월 29일)로 일하게 된다.

김정순 전도사(제10-2교구)는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었다.

대교구	소교구	담당관할지역	세대
1	I-1	역삼동 650번지 ~ 700번지 495	495
	I-2	역삼동 701번지 ~ 이후 416	416
2	2-1	역삼동 601 ~ 649번지 136, 압구정 88, 청담 76, 삼성 185	503
	2-2	논현동 382, 신사 47	429
3	3-1	개포 286, 일원 136, 자곡 3, 수서 67, 세곡 2	474
	3-2	도곡 204, 대치 286, 포이동 33	523
4	4-1	잠원 65, 반포 242, 방배 159, 신반포 7	473
	4-2	서초 280, 양재 87, 우면 27, 내곡 7, 신원 13, 원지 3, 기타 3, 염곡 1	890
5	5-1	관악구 329, 금천구 65	417
	5-2	동작구 295, 구로구 150	394
6	6-1	영등포구 142, 양천구 169, 강서구 169, 김포 6	445
	6-2	마포구 132, 용산구 188	486
7	7-1	은평구 119, 서대문구 86, 종로구 109, 일산 162	320
	7-2	중구 315	476
8	8-1	도봉구 148, 강북구 119, 노원구 104(상계 1,3,4,5,8,9), 의정부, 동두천 23	791
	8-2	중랑구 165, 노원구 174(상계 2,6,7,10중, 하, 공, 월) 구리 36, 미금 18, 남양주 35	315
9	9-1	성북구 217, 동대문구 192	822
	9-2	성동구 374	394
10	10-1	광진구 298	428
	10-2	강동구 325, 하남 24, 광주 7	409
11	11-1	잠실 274, 신천 50, 풍납 64, 잠전 45, 석촌 38	374
	11-2	송파 59, 방이 85, 오금 41, 개라 102, 문정 93, 거여 23, 마천 14, 장지 1, 기타 2	783
12	12-1	과천 62, 안양 177, 의왕 30, 군포 71	676
	12-2	평택 140, 분당 323, 판교 3, 용인 29	578
13	13-1	수원 46, 안산 42, 광명 114	889
	13-2	인천 148, 부천 160, 부평 80	418



제9대 안수집사 장립 및 제37대 권사 취임예배

교회는 지난 10월 18일(수), 수요일에 제9대 안수집사 장립 및 제37대 권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당회장 신성중 목사의 사회, 중경노회장 예종탁 목사의 설교, 당회서기 우기현 장로의 기도, 노회장 권희정 목사가 임직자에게 권면, 노회서기 김중학 목사가 교우에게 권면, 중경노회장 원사연 목사가 축사, 김창인 원로 목사의 축도로 순서가 진행됐다.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여 진행된 이번 예배에서 새로 임직된 집사, 권사들은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충현장단

● 시편 강해 ●

두려워할 날에 성도들이 취할 태도

(시 56:1-13)

시편 56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 장군입니다. 다윗 장군은 이스라엘의 구국 공신이며, 사울 왕의 둘째 사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 장군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억울함을 참으면서 도망을 다닙니다.

눈 땅에 가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떡을 얻어 먹고 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하늘도 넓고 땅도 넓으나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사람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경을 넘어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지방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산에 갔다 호랑이를 만나 빈 집이 있어 들어갔더니 큰 뱀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울의 꾀박을 피해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간 그곳도 평안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가드라는 곳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가드에 있는 장군들이 다윗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는 아가스 왕에게 끌려갑니다.

"대왕이여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제 발로 왔습니다. 이 사람은 머지 않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죽여 버립니다."

다윗은 이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6편입니다. 그가 얼마나 어려울 때 이 시를 지었는지, 이 시의 배경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고백함

1-2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고 압제하나이다."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선한 일을 하자 할 때는 게을러지고 우물쭈물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 싸우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는 데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선한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면 악한 일에 열심쟁이로 떨어집니다. 또 우리가 사는 땅에는 원수가 어디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악마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어느 때는 천사처럼 탈을 쓰고 나타나고 어느 때는 위험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악마에게 속아서 넘어지면 바보가 되고 악마를 무시위하면 앞집이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사는 데 다윗 장군은 원수가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한 말씀이 1-2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나이다

3절-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위험한 일을 면하는 방법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옵자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3절)" 인간적으로 두려운 날에 원망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말입니다. 원망하고 발악하는 자는 악을 씹니다. 다윗에게는 악도 없습니다.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

지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두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은 나를 버렸습니다. 본국에서 버림당해서 외국에 왔습니다. 외국에서 원수들의 장군들에게 붙들려 죽을 자리에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약속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 찬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니 찬송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실리와 함께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귀신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칭찬을 받을 사람에게 겸손이 감을 못한다고 해서 주인이 바울 선생을 고소했습니다. 고소를 받은 법관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물지도 않고 때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두 다리가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어찌될지 모르는 때에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이 지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그는 입에서 찬미가 나옵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바울 선생이 옥에서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런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의 생각은 심히 사악합니다.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의 모든 사상은 사악하라" 나의 원수들이 하는 생각은 악독한데 저들의 생각은 사악합니다. 간사하다는 말입니다. 저들의 말은 사투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중 삼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생명을 삼키기 위해서 종일 다윗을 죽일 연구만 합니다. 이렇게 원수들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내 피난할 나를 무리들이 따라오는 것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시라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7절)

내가 도망다니는 발걸음을 다 세시고 계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억울해서 우는 것에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라고 우는 나의 눈물을 하나님이 병에 담으셨나이다. 하나님 그 병을 한 번 보세요. 내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보시고 이제 나를 건져주소요. 이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포르고 나를 괴롭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올 때에는 내가 억울하게 도망다니던 발걸음을 걸은 것만큼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고 내 눈물이 한 것만큼 내게는 마음의 기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을 면하는 방법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오늘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 하셨나이까"(시 56:10-13)



백성이 애굽을 이기고 열 제양으로 애굽을 치시고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기억만 했어도 흥해 앞에서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불효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자는 악한 자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악한 자를 물리치는 방법은 첫째로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보니 찬송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의지하니 인간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수가 없다는 것이 났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할 일은 끝까지 멈춰하지 않아야겠다. 온 세상이 나를 버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발악하면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겠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나는 영육간에 발붙일 곳이 없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한 것만큼 온 세상이 나를 버릴 때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않아야겠다"고 자기의 신앙 양심을 지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심판으로 버리시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낙심이 없는 신자, 발악하지 않는 신자, 인내심을 품고 조심하는 신자,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지하는 신자를 어려울 때에 건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는 믿음

10절-13절을 보면 다윗은 기도를 들어주시길 믿고 각오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조금만 참으면 구원함을 얻는 기쁨이 올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이 올 때에는 내가 숨어다니지 않고 만민이 보는 앞에서 당당히 다닐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오니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찬미를 부르고 약속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다윗이 사람에게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끼리 볼 때에는 차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똑같이 허루살이입니다.

다윗은 일제히 이스라엘의 애통할 약

속을 받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어렸을 때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사울 왕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사울 왕이 범죄한 것 때문에 울지 말라. 내가 사울 왕을 치우고 대신 왕을 세우겠다. 그 왕을 위해 기름을 준비해서 기름부를 사람을 찾아가 기름을 부어라" 그는 메들레헴으로 가서 히새라는 사람의 아들 7형제를 보고 큰아들부터 7째까지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아니라고 해서 마지막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오니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망의 함정에서 건져 내셨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유롭게 사는 오늘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미 약속한 약속대로 천신을 바로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자의 일생에는 원수가 많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까닭없는 원수까지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배당까지 따라오는 원수도 있습니다. 악마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원수들은 악한 일에는 열심히 하고 단합을 잘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맘을 쏟고 악한 일에는 그렇지 못하여 맙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다섯 가지를 기억합니다. 이때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절대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발악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살려 주시면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라고 늘 소원기도를 드리던 어려운 일에 빨리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받은 다음에는 꼭 감사를 줄 어는 신자가 됩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아니한 그 사람의 발걸음을 세시고 눈물을 병에 담으셨다가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말씀 그대로 다윗 장군은 가드에서 풀려와 몇해 있다가 임금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4회 컴(COME)세미나 참가자들의 이야기

지난 9월 20일(수)부터 시작하여 9월 28일(목)까지의 모든 일정을 마친 제4회 컴세미나는 회교권 목회자 35명이 8박 9일간 머물면서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장, 한국에 대해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우고 느끼며 지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간 그들이 느끼고 생각했던 것을 알아보았다.

제 4회 컴세미나 기간 동안에 한국에 대한 인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국사람들은 아주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시간을 허송세워하며 먹고 즐기는 분위기보다는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음질하는 인상들, 각자가 자기들이 맡은 일에 충실하고,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고 아름답습니다. 또한 한국은 매우 아름다운 나라인것 같습니다. 어느곳을 가든지 푸른 동산, 맑은 물, 잘 가꾸어 놓은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왠지 모르게 저희들에게는 한국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고 무척 포근하고 다정 다감한 느낌이 들며, 우리의 고향 같은 분위기, 사람들의 생김새와 습관이 우리와 별 차이가 없어 거부감이 없고, 친근감을 갖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인상과 깊이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예배시간, 강의시간, 찬양,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력, 구역예배, 기도회 등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영성에 대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교인들의 찬양과 기도의 열정과 참여도는 저희들에게 큰 도전과 감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2,000여명이 넘게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성기도하는 모습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은 저희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주일날 구름떼처럼 몰려와서 본당에 빈자리 하나없이 참석하는 모습은 저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었고, 예배시간이 되자 온 성도들이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모습과 온 정성을 다해 아름답게 다듬어진 화음, 우렁찬 찬양의 모습은 천사들의 찬양처럼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신성종 목사님께서 잘 준비된 말씀과 세련된 어투로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와 기쁨을 심어주며, 때로는 천둥을 치는듯한 강한 메시지로 성도들에게 결심과 각오를 하게 만드는 말씀들..... 말

씀에 귀를 기울이며 은혜를 받는 성도들의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주신 이유를 한 눈에 볼 수 있었고, 기독교 역사가 더 오래되었지만 저희 나라의 성도들은 너무 단일하고, 잠자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금요찬양집회에 참석해보니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에서 큰 도전을 받았고, 저희들도 숙소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들, 그들 나누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으며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한국 교인들은 참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더군요. 저희들이 함께 참여하여 구역예배를 드리는 모습, 구역에서 심방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도 아닌데 참 잘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고, 그 후에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선물은 저희들의 마음을 녹여 놓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의 현장인 순교자 기념관에 가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교의 피를 흘린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세미나에서 놀라운 감동과 새로운 도전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한국 교회의 실제적인 현장과 사건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새로운 각오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돌아가면 마 28:19-20절에서 주신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라는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면서, 우리들도 영적인 하나됨과 영적인 각성과 기도의 능력을 얻기 위해 매달 정기적인 목회자 기도회를 가질 것입니다. 또한 저희

나라의 상황과 여건이 한국 교회와는 다르지만 저희 교회에도 철야기도회, 구원초청, 평신도 지도자 양성, 목회자의 영적 성장을 위해 컴세미나와 같은 목회자 세미나를 갖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부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컴세미나를 통하여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신성종 목사님과 당회, 목회자,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세 분의 선교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온갖 사랑과 관심으로 섬겨주시고, 큰 도전과 귀한 선물을 베풀어 주신 성도님들께 본국 교회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컴세미나를 계기로 한국 교회와 이집트, 터키, 수단 교회들 간에 상호방문, 정보교환, 강단교류, 회교권 선교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고, 많은 선교의 장애물과 위험상황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저희들의 교회를 위해 뜨거운 기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서운 세상 크고 작은

사고 속에서도 교회를 오가는 어린 생명들을 지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인간의 육신을 연단하듯 땀흘리고 몸태우던 무서운 여름은 사탄과 함께 사라지고 심은대로 거두시는 풍년이 왔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크

레파스로 그린 가을, 황금색 넓은 들판, 여러 가지 과실이 주렁주렁 매달려 땀을 자랑하며 뽐내는 그림같은 가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토실토실 살찌우는 풍요의 가을 우리 초등3부 어린이들의 신앙생활이 상큼 높아진 파란 하늘같이 높아지게 붙잡아 인도하여 주세요. 사탄 마귀는 모습을 숨겨 달콤한 말로 어린 생명들을 교회 못나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10월 29일(주일)은 초등3부 "새친구 초청잔치"입니다. 많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과별로 어린이와 선생님이 어울려 전도하는 날입니다. 믿지 않은 어린이를 찾아 예수님을 모르는 어린이를 찾아 학교, 아파트, 길에서 노방전도를 하며 교회본당 앞

우리는 지금 / 초등3부

새친구 초청잔치(10월 29일) 초등3부로 오세요

에서는 우리 초등3부 성가대가 지휘자 선생님과 반주자 선생님과 함께 피크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나오지 않은 어린이와 새친구에게는 찬양으로 전도하는 날이니 모두 함께 전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초등3부 화이팅"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 닮은 어린이가 됩시다.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초등3부에 모여 예배드리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초등3부 예배실은 교육관 407호실입니다. 예배시간은 제1부가 8시 50분에 종으신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리며 예쁜 전도사님께서 고운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어린생명에게 알기 쉽게 도박도박 먹여 주십시오. 그 말씀은 받아먹는 어린

이마다 영영 죽지않는 영의 양식이랍니다.

제2부는 각종 시상, 생일축하, 새친구 환영이 있고 선생님과 어린이의 분과공부가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재미있는 친교시간도 있습니다. 앞으로 10주만 있으면 정들었던 초등3부 예배실과 반선생님, 웃고

웃던 친구들이 한폭의 그림으로 남아 있겠지요. 지금의 어린시절은 긴 그림으로 남아 선생님 곁에서 땀뿜겨요. 사탄을 물리치며 길 위에 두고온 초등3부의 발자국이 예수님만 따르게 하고 주 날개 그늘을 찾아서 예수님과 친구되어 초롱초롱한 눈길마다 웃으며 노루 사슴같이 교회로 달려가는 어린이들이 모두 됩시다.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새미한 음성따라 열심히는 초등3부 어린이가 됩시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남은 시간들을 예수님 앞에 한 점 부끄럼없게 새롭게 거듭나는 영혼, 찬란한 아침을 열고 믿음으로 씩씩하게 자라나는 어린이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헌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10월 29일 오전 8:30부터 ~ 오후 3:30까지
· 본당 앞 광장에서

우리 교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헌혈을 실시하고 있다. 인공장기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는 현대 과학기술로도 혈액만큼은 못 만들어내고 있고, 혈액 보관 유효기간이 35일을 못 넘기기에 매일의 필요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

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헌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장기 기증, 안구기증 등으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헌혈은 누구나 가능하다. 적극적인 마

음으로 헌혈에 동참하자.

· 헌혈을 할 수 있는 기준

- 16세 이상 65세 이하
- 남 50Kg 이상, 여 45Kg 이상
- 혈압정상, 맥박 정상인 사람
- 법정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 헌혈을 해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

우리 몸에는 체중의 약 8%의 혈액이 순환하고 있다. 그런데 체중 50~60Kg의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혈액 중 10% 정도는 탄력의 출혈에 대비한 여분의 혈액인데 헌혈은 이 여분의 혈액중에 하는 것이기에 헌혈은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헌혈을 하지 않아도 우리 몸 속에 있는 혈액의 1% 정도는 매일 땀이나 신진대사 작용이 반복되기에 헌혈을 하게 되면 조혈기능이 활발해지고 대뇌혈류가

촉진되어 평상시보다 빠른 속도로 신선한 혈액이 생산, 보충되므로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국내외 의학계의 연구 보고도 있다.

· 헌혈은 곧 자신의 건강진단이다

- 혈액측정 및 건강진단 / 헌혈자의 건강상태와 병력에 대해서 두루 살펴서, 헌혈여부를 판단하며 혈압도 측정한다.

- B형·C형 간염 및 AIDS·매독 항체검사 /

헌혈혈액은 헌혈자의 건강과 수혈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상가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여부를 가려내고 있다.

- 간기능 검사 /

헌혈자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실시하며 6가지 항목(AST, ALT, 총단백, 알부민, A/G 비, 콜레스테롤, 요소질소)으로 간기능과 저절대사의 이상유무를 진단해 준다

토·막·소·식

◆ 탁아부는 11월 12일(주일), 3부 예배 후 12시 30분부터 '자녀를 위한 어머니 교실'이라는 제목으로 유아건강법(1세~7세)에 대한 특강을 한다. 강사는 오현구 집사(대한병원 소아과장)이며 장소는 탁아부실(베들레헴 112호실). 유아를 가진 어머니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중등부 연합 10월 28일(토) '시와 찬양의 밤'

교회학교 중등 1·2·3부는 10월 28일(토) 오후 3시에 갈릴리움에서 '시와 찬양의 밤' 행사를 연합으로 갖는다.

이날 행사는 중등 각 부가 1년 동안 교육의 발표의 장도 되고 연합행사의 의미도 살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찬양과 성극, 시화전, 대학부 NMC의 특별출연 등 갈수록 교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 초등1부는 11월 19일(주일)에 성경이야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주제는 ① 사자굴 속의 다니엘 ②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③ 솔로몬의 지혜 세 가지 중의 하나를 발표하면 된다.

◆ 중등1부는 10월 29일(주일)을 총동원 전도주일로 정하고 준비중이다.

◆ 고등부는 11월 5일(주일)에 잃은양 찾기 총동원 전도주일로 모인다.

◆ 대학부는 제5회 충현올림픽 매점운영을 통한 수익금 661,500원과 성령비전 3차 대회 수익금 270,000 그리고 학생회 헌금 68,500원을 합한 1,000,000원을 복한 수해헌금을 하였다.

◆ 장년1부는 10월 29일(주일)에 달란트 발표대회를 열기로 하고 준비중이다. ① 전도설교, ② 찬양, ③ 시낭송, ④ 악기연주, ⑤ 기타 개인장기 중에서 펼친다. 원고는 22일까지 제출하며 소요시간은 각 5분 이내로 부탁하고 있다.

◆ 장년2부는 성경암송대회를 열기로 하고 준비중이다. 예선은 10월 29일(주일) 12시 30분이며, 본선은 11월 5일(주일) 12시 30분에 치른다. 범위는 디모테후서 2장이다. 장소는 교육관 314호이며 대상은 장년2부 전원.

◆ 장년3부는 성경퀴즈대회를 11월 12일(주일)에 창세기 전장과 로마서 6~16장을 범위로, 장년3부 전 학생을 대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능력으로 날마다 붙들어주시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2.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3.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4.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세계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금년에도 풍년을 허락하소서.
5. 제2교육관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소서.
6. 각종 재난과 사고를 당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함께 나누게 하시며, 북한의 수해복구를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이를 계기로 북한이 변화되게 하소서.

상으로 펼친다.

◆ 새가족양육부에서는 성경암송대회

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범위는 요한일서 5장, 일시는 10월 22일(주일).

할 렐루야!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중국 장춘 신학원 기공예배와 또 뜻깊은 만남들, 그리고 그 때 받은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들과 권사님 여러 집사님들의 사랑과 격려가 아직 저의 마음에 훈훈이 남아있습니다. 참으로 주 안에서 동역자되고 형제된 이들의 만남은 귀하고 축복됨을 다시 또 느낍니다. 고국의 파란 가을 하늘이 생각납니다. 이곳 홍콩은 아직은 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여름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여기도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지난 4월말로 언어 훈련과정을 마치고 제가 배운 광둥어를 가지고 어떻게 영혼을 섬길 것인가를 기도하던 중, 저희 부부가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5월 20일경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첫 모임의 참석자는 저희 부부와 한명의 형제(중국 대륙에서 온 형제)였습니다. 장소는 홍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홍콩 김은태 선교사

시간이 지날수록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인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콩 대학생 선교회 본부로서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토요일과 주일을 빌렸습니다.

이 주변 지역은 한 편으로는 공장지대가 밀집되어 있고 한 편은 평수가 적고 오래된 정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주변에 여러 곳이 있으나 심한 우상숭배의 영향으로 역사에 비해 성장이 아주 더딘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생활 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며 아파트 건물 한동에 약 1,000가정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0가정의 문을 두드리면 한 사람 정도가 복음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8월에는 한국에서 온 학원 전도회 대학생과 이곳 대학생들과 저희 성도 몇 사람이 합심하여 3주간의 단기선교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그동안 가져왔던 기도와 전도모임을 주일 예배로 바꾸었으며 어린이 주일학교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교회의 명칭은 우두각장로회('牛頭角'이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여기는 대개 지역 이름을 따서 교회를 명명함)로서 주일 아침 9시 20분에 주일학

교가 시작되고(약 10명이 참석), 11시 이른예배에는 평균 15~20명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 외에는 중국인입니다.

예배 후에는 준비한 점심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고 찬송을 배우며 신앙의 기초적인 것을 배웁니다. 수요일 밤에는 산상기도회로 모여(5~6명) 두세 시간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목요일 밤에는 저희 집에서 성경공부를 합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는 처음부터 해왔던 축조전도를 나눕니다. 이 전도방법은 이곳 교회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만을 보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어려움도 있으나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새신자들은 이 축조전도를 받고 나온 분들입니다. 그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또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들의 기도의 수고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인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핵심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모든 식구가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수많은 개인과 가정의 문제들(이혼, 분가, 마약, 청소년문제, 정신병자, 위신들림, 악령숭배 등)이 발생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의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는 보편화된 모습입니다.

영국의 오랜 식민지 정책의 결과 젊은이의 가슴엔 꿈이 없고, 공허함을 물질과 향락, 도박 등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 숭배와 맞물려 있는 우상숭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분쇄하기 위해 성령의 강한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교회들이

기도가 약하고, 기독교인라는 자 중에도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갖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상한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이 땅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회개와 영적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1997년 7월 1일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이 일에 저희 부부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홍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 사람들이 바로 중국 사람입니다. 이들이 변화되면 곧 바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는 복음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새신자들의 영적성장과 올 해 말까지의 30명 이상의 숫적 부흥, 그리고 좋은 동역자들도 보내 주시도록, 끝으로 홍콩에 기도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방 선교(오늘은 홍콩, 내일은 중국)의 동역자된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위에 풍성하게 임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주안에서 김은태, 서인숙 드림
115 Block F, Telford Garden,
KOWLOONBAY HONG KONG.

▼ 첫번 세례식 거행후 기념사진

